출소자 갱생생활관 건립

한사연, 경주 원효사에 '불광원' 4월 기공
불교용품 제작 등 재활프로그램 마련

불우한 출소자들의 재활복지시설인 제2생활관 불광원이 교계 최초로 건립된다.

경주 한국불교사회연구원(원장 돈관)은 2월 12일 불광원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성타스님·조계종 포교원장) 회의를 갖고 불광원을 천북면 원효사에 건립키로 하는등 세부사업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불광원건립추진위원회는 4월 13일 원효사에서 '불광원건립기원법회 및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불사에 착수한다. 불광원은 6월까지 5백여평의 대지에 건물 1동을 신축하고 10여명의 출소자를 영입해 6개월간 시범운영한다. 재소자들을 위한 재활사업도 병행된다. 재활프로그램은 염주, 목탁, 지화등 불교용품제작사업과 직업알선, 심성교육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불광원건립위원회는 '범죄자'라는 특성을 감안해 청송감호소측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재활을 위한 정보도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불광원건립추진위원회는 6개월동안 불광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시설확대는 물론 재활을 위한 직업교육도 추진한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이와관련 성타스님은 "교도소 재소자들에 대한 교화활동은 꾸준히 펼쳤으나 막상 출소자들이 사회에 나와서 바르게 생활하고, 불자로 다시 태어나도록 이끌어주는 복지시설이 전무해 안타까웠다"며 "불광원 건립은 포교역사에 한 획을 긋는 대작 불사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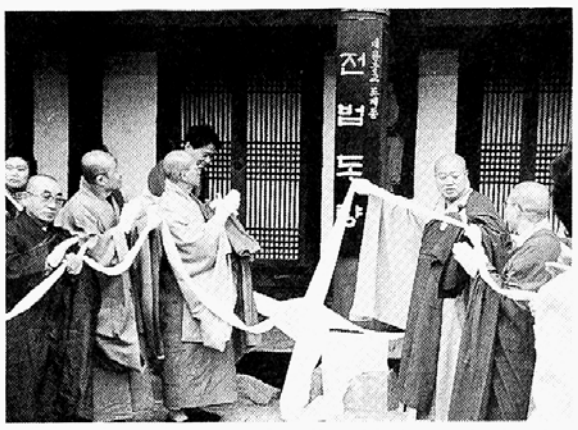
한편 타종교의 경우 전국적으로 많은 갱생보호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인가를 받은 시설만도 기독교는 서울 남안 선교회등 6곳, 천주교는 대구 출소자의 집등 2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사설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 교정인들의 얘기다.

〈김중근 기자〉

한마음선원 IMF 극복모임
7일 강남구민회관

조계종 한마음선원(원장 대행)은 7일 오후 5시 강남구민회관에서 'IMF를 이기는 우리들의 모임'을 개최한다.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란 주제'로 마련되는 이날 모임에서는 한마음선원 주지 혜원스님의 법문과 나라사랑 금 모으기 운동 동참 및 한민족 돕기 모금행사에 대한 강남지역의 동참결과를 분석,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참여운동에 대한 토론등이 진행된다. 한마음선원 어머니및 청년합창단의 음성공양도 마련된다.



"여기는 전법도량" 조계종 전법도량지정 첫 순회법회가 27일 서울 봉은사에서 현판식과 함께 열렸다.

전통사찰 주변 개발 '불가능'
환경보전법 시행…자연경관 훼손 방지

앞으로 전통사찰주변과 해수욕장 인근 숲, 도로변의 거목 등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생태계가 잘 보전돼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제한을 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돼 2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은 전통사찰 주변과 해수욕장 인근 숲, 도로변의 거목, 암석·암벽·폭포·해안선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입목의 벌채나 토지형질 변경시 제한을 가해 자연경관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전통사찰 주변환경의 무분별한 개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 조치가 없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생태계 보전지역에 사는 주민들에 대해 지금까지 해 온 영농행위와 어로행위, 채취행위를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증·개축도 기존보다 2배까지 허용하도록 완화했다.

'희망의 쉼터' 개설
동화사, 대구 이천동에

동화사 부설 불교사회복지회(회장 무공)는 3월3일부터 대구 남구 이천1동사무소 3층에 '남구희망의 쉼터'를 개설한다.

대구시 남구청의 주최로 불교사회복지회가 주관하는 이 쉼터에는 복지사 2명과 자원봉사자 1명을 근무토록 해 정보교류, 취업상담, 심리상담, 무료음료 제공, 문화영화 상영, 여가선용 장비(바둑 음악시설) 비치, 사찰무료관람권 제공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 처음 이용시에 '쉼터 회원증'을 발급하고 이용료는 무료다. (053)427-1907

뉴스 & 뉴스

조계종 개혁종단 '적법'

94년 승려대회 이후 출범한 개혁회의와 개혁회의법에 따라 실시된 총무원장 선거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월24일 황진경외 6인이 상고한 조계종 총무원장 직무정지가처분과 김윤성외 2인이 항고한 총무원장 선출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확정 판결했다. 이로써 조계종 개혁종단에 대한 적법성이 사회법상으로도 문제가 없음이 공인됐다.

실천승가회 임원 개편

실천불교전국승가회(공동의장 청화 지선)는 25일 봉은사 교육관에서 50여명의 회원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제 5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년사업 및 예산안을 승인했다. 또 청화스님을 단일 의장으로 한 신임의장단과 집행위원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실천불교포럼 운영, 한국현대불교운동사 Ⅲ 발간, 민족 통일 기원 방생법회 봉행 등을 신년사업으로 추진키로 했다. 실직자들을 위한 쉼터 개설 및 프로그램 개발, 봉축기간 타종교 성직자 초빙공개토론회 등 특별사업도 승인했다.

대승사회硏 설립키로

전국불교운동연합은 24일 조계종 복지재단 강의실에서 제6차 대의원총회를 열고, 불교운동 정책연구 및 인재양성을 위한 대승사회연구원(가칭)을 설립키로 합의했다.

또 상임의장에 지원스님〈인터뷰 4면〉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전불련은 대승사회연구원을 4월경 가시화하기로 하고, 불교개혁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연구내용을 공론화하기 위한 불교계 여론조사사업, 잡지발간 사업 등을 추진키로 했다.

진흥원 IMF극복 수련회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은 3월 28~29일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IMF 위기를 맞아 부도 실직 등 불안에 떠는 불자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다시 일어서자'란 주제로 IMF 극복 용맹정진 수련회를 연다. (02)719-1855

장례식장 사설납골당 설치자금 70억 지원
복지부 5월 한달동안 융자신청 받아

장례식장과 사설납골당 설치를 위한 자금 70억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장례식장 현대화와 사설납골시설 건립을 지원하기위해 특별회계자금 70억원을 확보, 오는 5월 한달동안 융자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이중 장례식장 설치자금은 총 50억원으로 건축비의 70%범위내에서 지원되는데 전문 장례식장 신축은 연건평 3백평 이상일 경우 1개소당 7억원이하, 병원 장례식장신축 및 증·개축은 1개소당 4억원이 지원된다.

20억원이 지원되는 사설납골당은 신축비 또는 설치비의 50% 범위에서 지원하되 2백30평 이상을 신축할 경우 1개소당 5억원이하, 50기 이상의 납골묘 설치는 1억5천만원까지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융자금의 이자는 연리 8.7%로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장례식장, 납골당, 납골묘를 설립하기위해 건축허가나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융자신청일 현재 건축허가를 신청한 사람은 누구나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법인, 종중·문중 등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지역은 전국이지만 수도권과 6대 광역시 등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우선 지원된다.

신청은 융자신청서와 구비서류, 담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관할시·군·구청에 접수하면 되며 6월중 보건복지부가 각 시·도별로 신청서를 모아 검토한후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문화·환경운동 추진
청교련 올 사업 확정

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스님)는 26일 총회를 갖고 98년 사업계획 및 2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청교련 중앙본부는 △문화기행 △청소년 큰잔치 △눈밭축제 △종합예술 경연대회(5월17일) △건전 소비문화 다짐 캠페인 등의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각 지부 지회와 공동으로 환경운동, 자원봉사를 주축으로한 활동도 벌인다.

'고통나누고 내가 먼저 베풀 것' 등
직지사, IMF 실천지침 마련

김천 직지사(주지 녹원)는 2월 22일 파크호텔에서 본말사 신년교례회 및 신도회 정기총회를 갖고 고통을 나누고 내가 먼저 베풀 것등 3개항의 IMF실천지침을 마련했다.

이날 법회에서 직지사 주지 녹원스님은 "불교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위대한 업적을 창출했다"며 IMF 시대 극복을 위한 실천지침을 제안했다. 이날 제안된 실천지침은 △부처님을 공경하고 정법을 배울 것 △꾸준히 기도하고 정진할 것 △고통을 나누고 내가 먼저 베풀 것 등 3개항이다. 직지사는 중앙승가대 묘우스님(3학년) 등 11명에게 장학금도 지급했다.

◇조계종 스님들과 선암사 대중스님들이 팽팽히 대치하자 순천시가 양측의 물리적 충돌을 대비해 5개 중대를 투입했다.

선암사 싸고 조계-태고 마찰

목탁소리

도 필 선 〈취재1부 기자〉

순천 선암사를 둘러싼 조계·태고종 간의 분규가 또다시 재연됐다.

세민스님(수안사주지)을 비롯한 조계종 스님과 신도 80여명이 2월 23일 오전 5시20분 선암사 대웅전과 설선당을 점거 태고종측 스님 20여명과 대치하다 12시간만인 이날 오후 5시30분쯤 자진 철수했다.

이와관련 태고종은 오전 12시30분 서울 총무원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계종 세민스님은 승려와 불량배를 동원해 종권침탈행위와 훼불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전 종도의 의지를 한데 모아 선암사를 끝까지 사수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오후 3시20분에는 세민스님측이 선암사 노전실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선암사 접수는 산내 대중 다수의 동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경찰서는 양측의 물리적 충돌을 우려, 5개중대 7백50명의 전경을 배치했다.

이날 태고종 총무원은 선암사 산중총회, 선암사 수호비상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주지 지암스님을 비롯 7직 스님을 해임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선원장 향산스님, 법인스님, 법상스님은 산문출송됐다. 태고종은 24일 시·도교구 종무원장 회의를 선암사에 긴급 소집 선암사를 태고종 직영사찰로 운영키로 했다.

한편, 25일 전불련은 성명서 통해 "폭력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佛家)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하고, 양종단이 책임있는 모습으로 사태해결에 나서주기를 촉구했다.

선암사는 40여년간 분규가 계속돼 온 사찰로, 그동안 법적사찰 소유권은 조계종측이, 점유권은 태고종측이 또 재산관리권은 지역 자치단체장인 순천시장이 행사해 왔다.

조·태분규는 1954년 5월 21일 이승만대통령의 유시로부터 시작됐다. 현재 분규는 순천 선암사 향림사 서울 봉원사 백련사 안정사 인천 용궁사등 규모가 큰 사찰들을 중심으로 잊을만 하면 재연되고 있다. 분규의 핵심은 사찰의 운영권을 둘러싼 재산차지로 모아지고 있지만 조계종은 '정화'로 태고종은 '법난' '분규'로 다르게 부르고 있어 법통과 자존심의 문제도 적지 않음을 내비치고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 두 종단의 갈등은 불교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것이라는데 있다. 사찰과 승가는 성불과 중생교화를 위해 존재하는 만치 분규라는 현안이 40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모습은 결코 아름다울 수 없다. 두 종단의 분규역시 일제의 잔재다.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와 협동의 지혜를 보여 분규를 종식시킬때 두 종단의 발전과 한국불교의 전체적 화합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3·1절을 앞두고 발생된 이번 선암사 사건은 바로 이 점을 재확인시켜주었다.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안녕하십니까.

戊寅年 3월 현대정보결혼 연구원 5주년이 됩니다.
사랑과 애정으로 이끌어주신 불자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5주년 기념행사를 축하하며 우리 불자님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98년 3월부터 4월까지 두달간 회비를 50% 감면 10만원으로 모시겠사오니 많은 성혼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 영숙(본명)

大卒, 초·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현대정보 결혼연구원

원장 이 영숙 합장(법명:無生子)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5가 18번지 영신상가 3층 317호

대표전화 : (02)634-4910~2 (011)288-4910

춘천 옥산가옥의 신비!

아래와 같은 사연 수백통씩의 건강체험 사례집이 4권에 이릅니다. 성인병 난치병에는 玉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십시요.

옥침구

41세 주부입니다 박 진 97.6.20

저는 3년 전에 구와인사 는 (화사 풍)라는 병이 나서 환자 맞고 약도 많이 먹고

(中略)

불신하면서도 한번 속아보자 하면서 그날 목이 뻣뻣 삼습니다 그날 저녁에 (목이불 옆고 목 배개는) 배고 잤는데 땀이 흠뻑 났습니다 옆 침대에서 제가 몸이 얼음장 같았는데 얼굴이 가렵고 어지도 지럽고 기운 가는 것처럼 기운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에 목이 뻣뻣 목 배개 하기 전에는 이런 증세가 없었는데 혈액 순환이 어두 잔다서 이렇게 가렵구나 하는 것은 느꼈습니다

아무게 아니라 이틀이지나니 가렵고 지럽고 기운 가는 것 증세가 없어지고 몸이 아주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순은 써는 지금은 년 육 개 건강 좋고 너무나 아름다운 생활이라는 저도 느끼고 주위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산시 양덕2동 한일타운 , 조 , -68 ;

백옥 팔반 염지 주찌

옥옥옥 벨네이 트웍불

※ 춘천옥이라는 제품은 수입 유사품옥입니다 진옥은 玉山家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번지 쁘렝땅백화점 지하상가 을지로쪽입구 玉山家® 是空 合掌 777-0105(우편판매가)

여성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있다. ( )
18. 당뇨와갑상선으고통받는다.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향비를 사용한 체험담

저는 1남 1녀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몸이 약하고 힘든 탓인지 2-3년 전부터 불면증과 방광염이 생기면서 얼굴에 기미가 끼기 시작하더군요.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방비 상태로 두고 있었는데 언니가 한약재 성분으로 만든 "향비"라는 배꼽에다 착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먹고 바르는 약이 아니라서 부작용이 없을것 같다고 사용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신 반의 하는 마음으로 착용해 보았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면증이 없어지면서 사람들로부터 피부가 고와졌다 예뻐졌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아도 화장도 잘 받고 기미도 옅아지고 혈색이 잘도는것 같아서 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 6개월이 되었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곤기 있게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착용할 예정입니다. 다시한번 향비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저처럼 기미, 불면증, 방광염, 생리통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권해보고 싶은 제품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학동 272 신동아 APT 박 지 희

제품문의 : (株) 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